

■ 2017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평

전통예술 분야

- 일정 및 장소 : (1차)7.12(수), (2차)7.19(수)/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영일, 박재천, 손정우, 장현진, 조경환

전통예술 올해의 레퍼토리 2차 사업에는 총 14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지원 작품 중 공연영상자료 및 대관확인서와 같은 필수서류 미비 등의 결격사유를 지닌 작품들을 제외하고 심의가 이루어졌다. 심의 결과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균 76점 이상을 획득한 5개 작품을 2차 PT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1차 심의 과정에서는 공지된 심의기준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1. 실험성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번 공모에 접수된 작품들의 특징은 예술적 표현재료의 다양성이다. 다매체 복합공연(영상, 인형극, 그림자극, 굿, 전통악기, 재즈, 가면극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재료들을 사용한 공연)은 현대공연예술의 특징이다.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표현소재들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미학적으로 세련되게 가공시키는 연출시도는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여러 장르(표현재료)가 섞이는 과정에서 각각의 장르가 지니고 있는 장점이 소멸되거나,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결과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들이 많아 이것을 보완 및 개선 할 수 있는 연출적 고민 또한 요구된다.

2. 확장성

전통예술을 현대화/대중화 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공연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사업목적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국악과 재즈를 충돌시키고, 연주와 현대무용, 최신 테크놀로지를 충돌시키는 작업 등을 통해 전통예술을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연주 자체의 완성도를 유지하면서 대중성과 실험성을 확보한 작품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3. 현대적 수용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수용하는 작업들은 연극, 무용과 같은 공연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굿’ 형식을 차용한 연극은 대학로에서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형식에 대한 실험도 중요하지만 공연의 완성도가 전제 되어야 한다. 사라져가는 경기도당굿을 그림자극 등 다양한 형식과 결합해 현대적으로 연출한 작품의 경우 기획의도는 높이 평가되었으나 공연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판단되었다. 작곡가, 안무가, 연출가 등 각 분야 전문예술인들의 치열한 협업을 통해 이러한 단점들이 개선/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필수자료 미제출

올해의 레퍼토리는 기존에 공연된 작품을 그 심의 대상으로 하므로 실제공연에 대한 자료(공연영상, 대관확인서)는 심사에 있어 중요한 평가근거였다. 아쉽게도 몇몇 지원 단체의 경우 공연영상자료 미제출로 인해 평가대상에서 탈락되었다. 향후 지원 신청 시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2차 심의(PT 및 인터뷰)는 1차 심의에서 선정된 5개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3개 작품을 올해의 레퍼토리 2차 공모 지원대상으로 결정하였다. 2차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1. 작품의 수월성

본 사업의 목적은 우수한 창작공연이 일회성 지원으로 사장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고 국제적 수준의 레퍼토리를 만드는 데 있다. 따라서 작품의 완성도와 독창성이 최종심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서정민의 <Home>, 앙상블시나위의 <사랑이여>, 허윤정의 <거문고 스페이스>는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1차 공연에서 그 작품의 완성도가 다른 지원작에 비해 입증된 작품으로서 2차 심의과정에서 레퍼토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러 장르와 내용을 담다보니 공연이 다소 산만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 레퍼토리로 고착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

2. 제작의 실현가능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연예술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소규모이지만 밀도 있는 공연이 레퍼토리로서는 적합하다. 2차 심의대상 작품 대부분이 초연 때와 비교해서 제작규모(극장규모 및 참여인원)가 확대되어 인터뷰과정에서 지원자와 심의위원 상호 간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소극장 초연작을 중·대극장으로 확장해 공연하는 경우, 연출에 있어 초연과 여실히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공간과 더불어 출연진 확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일부 선정작품의 경우 20명 이상의 대규모 출연진으로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려는 의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일회성 행사가 아닌 창작 레퍼토리로서 반복 재생산 가능성도 연출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립단체들도 국제적 수준의 레퍼토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단체에서 짧은 시일 내에 국제적인 수준의 레퍼토리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통예술 분야의 경우 특히 홍보마케팅 계획이 취약한데, 공적지원금이 투여되는 작품인 만큼 지역 기반 콘텐츠이더라도 전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홍보플랫폼에 대한 고민, 관객개발계획 등 확산 전략에 대한 깊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창작산실 전통예술 레퍼토리 지원을 계기로 우리전통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